

청소년의, 우리의

청소년 휴카페 머뭍

김나운, 강승현
스튜디오인로코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88
용도	근린생활시설(청소년휴게공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2층 290m ² , 3층 290m ²
규모	지상 2개 층 리모델링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	강승현, 김나운
설계담당	임형준
시공	여강건설
기계·전기설계	지오엠 글로벌
설계기간	2020.6.~2020.11.
시공기간	2021.3.~2021.6.
공사비	약 5억
건축주	여주시



2층 휴카페 내부

숨어서 쉬는 작은 공간, 매달리거나 오르내리는 장치, 형형한 색과 기하를 배제하고
담담한 장면과 성숙한 공간 정서를 경쾌하도록 돕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청소년은 지역 주민을 구성하는 넓은 범위의 연령집단이고 휴카페는 다양한 주민 쉼터 중
한 유형이므로, 사용자 그룹을 지나치게 특정하지 않은 환경에서 청소년이
공공공간을 훈련하고 공동체를 연습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삼한강변

여주건축사사무소

고시텔

여주라벨

© 2024 현대건설 (Modern Construction Co., Ltd.)



폴딩 도어를 열어 실내외가 연결된 모습



© 스튜디오 인로 건축사사무소



© 스튜디오 인로 건축사사무소



© 스튜디오 인로 건축사사무소

상 2층 스튜디오
하 부드러운 커튼으로 분리된 내부



◎스튜디오인포코 건축사무소



◎스튜디오인포코 건축사무소

상 소그롬 스튜디오 영역
하 개인 라운지



상 휴카페와 개인 리운지
 하·좌 3층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하·우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열린 느낌을 주는 공간

100평에 가까운 내부는 앉는 방식, 모이는 인원의 규모,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의 성격 범위를 고려하여 작은 단위 영역으로 구획하였으나, 영역 간 물리적 분리를 최소화하고 그 사이 경계를 느슨하고 밝은 상태로 두어 한 곳에 머무는 경험이 이웃 장소와 수시로 연결되기를 의도하였다.



©스튜디오인로코 건축사무소
두루서서 공간

2층 입구에서 바라본 안내데스크

오래된 시내 강가에: 입지와 장소성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와 비슷한 변천 과정을 겪고 있는 여주시는 지속적으로 전체 인구가 줄고 노령화는 가속화되는 추이를 보인다. 새로운 택지로 이주가 이루어진 후 각종 공공시설이 주거지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원도심은 조금씩 비어 가고 남아 간다. 전에 비해 활기를 잃고 공동화된 원도심에 그러나 여전히 오랜 시간의 약속을 따라 시장이 열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다녀간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청소년들은 이런 도시의 변화 속에서 소외되어 여가를 위해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문화의집 1호는 남한강 건너편 관광단지 안에 자리하고 있어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지 않고, 택지 주변에 신축되는 청소년 수련관 역시 도심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원도심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공공간의 필요를 발견한 여주시는 남한강이 보이는 버스정류장 앞 건물을 매입하여 청소년 휴카페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가까운 곳, 원도심에 사는 청소년이라면 언제나 지나가다 들를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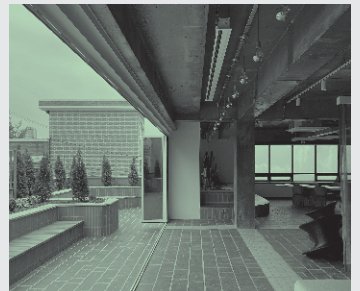
누구의 장소: 목표와 개념

구도심 남한강 변에 위치한 건물은 1995년 준공된 이후 산림조합과 로타리클럽 사무실 등 업무공간으로 쓰여 왔다. 2층과 3층을 재생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는 작업의 중요한 목표는 이곳에 ‘청소년다움’ 혹은 ‘청소년에게 어울리는’ 성질을 일반화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숨어서 쉬는 작은 공간, 매달리거나 오르내리는 장치, 형형한 색과 기하를 배제하고 담담한 장면과 성숙한 공간 정서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청소년은 지역 주민을 구성하는 넓은 범위의 연령집단이고 휴카페는 다양한 주민 쉽터 중 한 유형이므로, 사용자 그룹을 지나치게 특정하지 않은 환경에서 청소년이 공공공간을 훈련하고 공동체를 연습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장소의 확장: 재생 전략

건물은 북동쪽 경기실크와 남한강을 향해 수려하게 열린 경관을 면하고 있지만 벽과 복도로 촘촘히 구획된 내부에서 주변을 향유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2층에 길게 면한 테라스와 화단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찾아와 머무는 휴카페를 외향적이고 열린 성격

©신나무인테리어 건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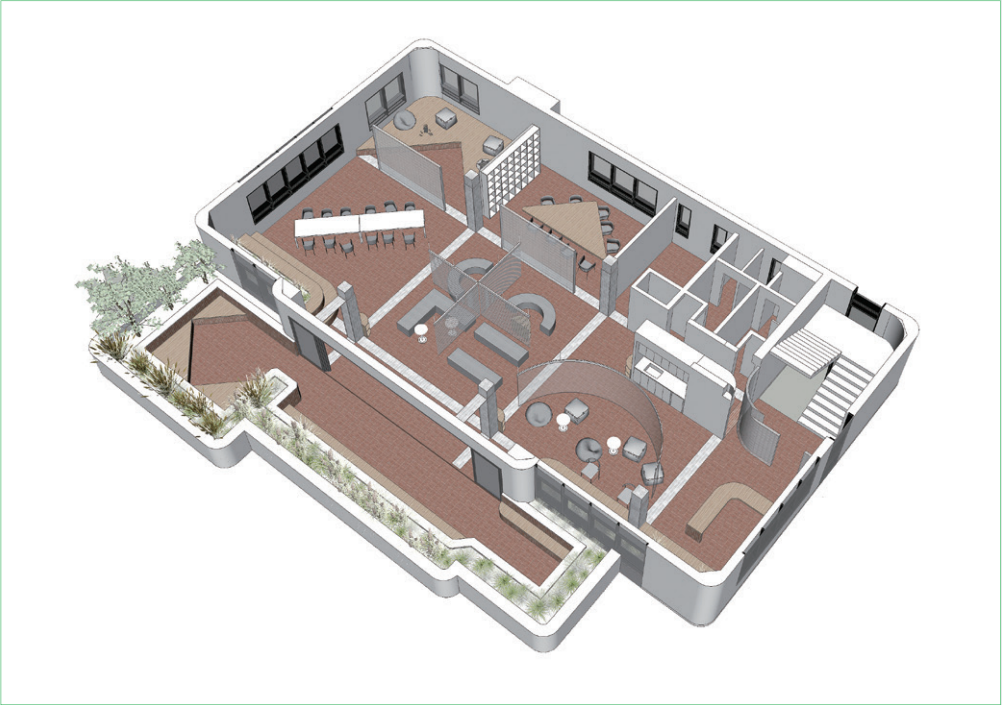
상 2층 휴카페 내부
중 휴카페와 테라스
하 풀딩 도어를 열어 실내-외가 연결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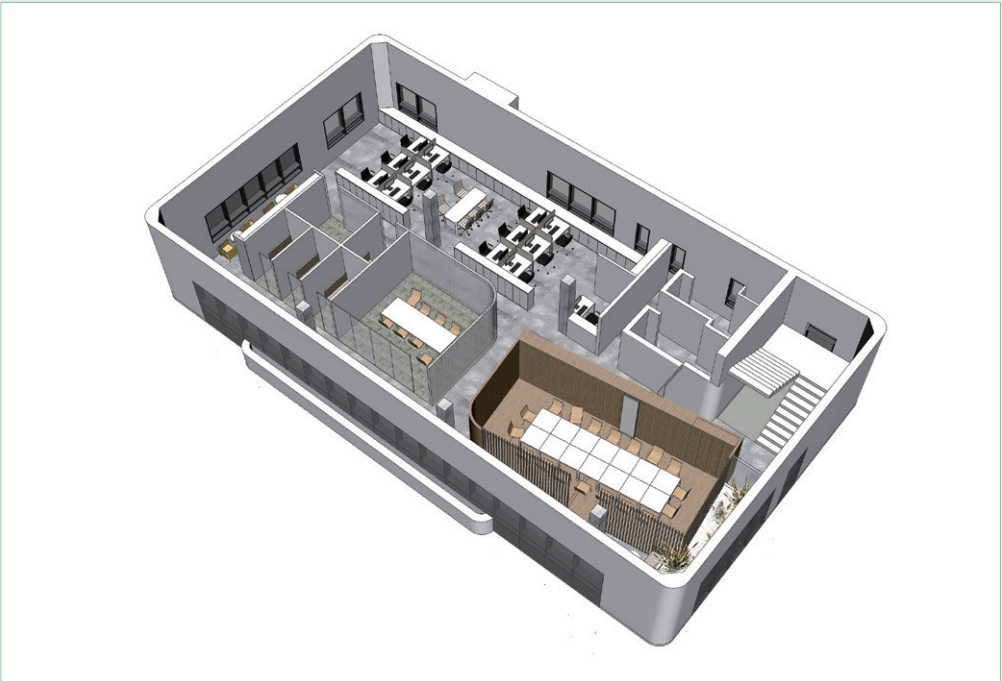
리모델링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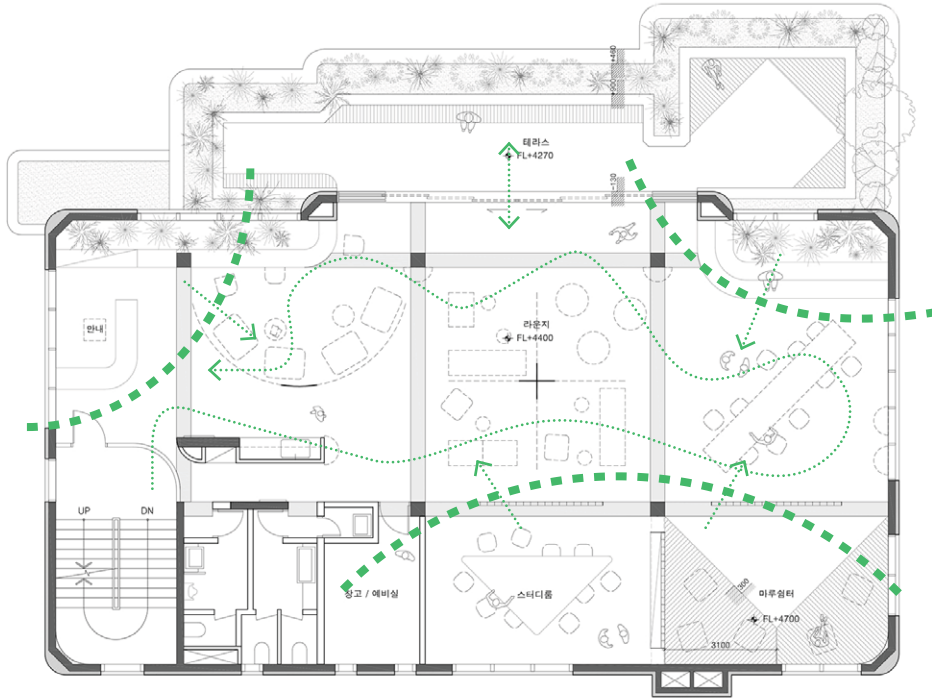
개념도



2층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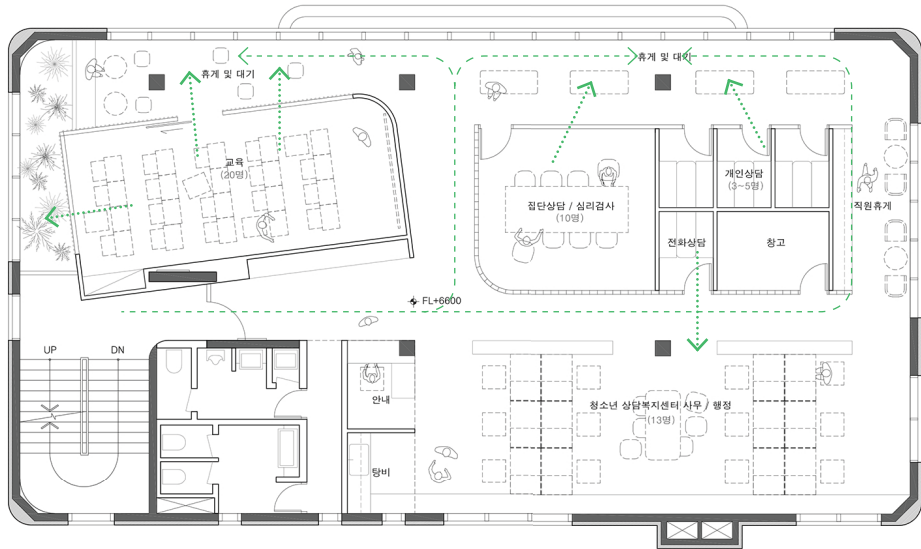
3층 엑소노메트릭



2층 청소년 휴카페

- 열린 공간 위주
- 공간의 구획이나 분리 최소화
- 열린 공간 내부 영역별 성격 부여
- 다양한 가구와 앉을 자리
- 다가성, 다핵성, 자유롭고 안락한 공간
- 남측: 스테디룸, 마루쉼터
- 기존 공간의 구조(보와 기둥) 드러낼 것
- 유리블럭, 곡선 및 직선형 가변 파티션, 폭신한 가구
- 외향적인 공간
- 돌아다니기, 쉬거나 대화하기
- 테라스와 실내공간의 연계
- 기분 좋은 웅성거림

2층 평면도(공간 개선 방향과 설계 개념)



3층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달린 공간(집속의 집) 위주
- 기능별 공간의 효율적 분리 및 적절한 차폐
- 반투명한 실내 재료로 자연광 유입
- 회유 동선과 여분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
- 통일성, 일방성, 영역성, 집중과 안정
- 남측: 사무 행정 공간
- 기존 공간의 구조(보와 기둥) 드러낼 것
- 유리블럭, 목재 루버, 불박이 수납
- 내향적인 공간
- 특정 공간에 오래 머물기, 업무보기, 회의하기, 내담하기
- 기능별로 분리된 주요공간과 그 주변을 회유하는 여유공간 간 연계
-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3층 평면도(공간 개선 방향과 설계 개념)



상 개인 라운지
중 3층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하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열린 느낌을 주는 공간

으로 재생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창이자 문인 개구부가 실내와 실외를 넉넉하게 연결하도록 계획하였다.

100평에 가까운 내부는 앉는 방식, 모이는 인원의 규모,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의 성격 범위를 고려하여 작은 단위 영역으로 구획하였으나, 영역 간 물리적 분리를 최소화하고 그 사이 경계를 느슨하고 밝은 상태로 두어 한 곳에 머무는 경험이 이웃 장소와 수시로 연결되기를 의도하였다. 소그룹 스터디 영역과 개인 라운지 사이의 유리 벽이나 부드러운 커튼은 한 공간 곳곳에 거리를 두고 머무는 사용자가 비슷한 공간 정서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주변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의 적정 거리를 연습하고 자율적인 관계를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정된 경계 없이 내부 전체가 바깥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크게 열리는 2층에 비해 3층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단위 공간이 외벽으로부터 이격되어 내향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외연에 배치된 이동 공간은 주 업무공간과 이어져 작은 기능실의 집중도를 높이고 순환 동선을 제공하여, 면적에 비해 많은 프로그램이 적용된 공간의 쓰임과 흐름이 유연하도록 돕는다.

청소년의 장소이지만 청소년용 같지 않게
알록달록하거나 오르내리는 장치 없이
꿈을 키우자거나 미래는 밝을 거라는 메시지 없이
누구에게든 좋은 공간이 청소년의 것이도록

깊이 있고 은은하게 하늘거리고 반짝이게
웅성웅성 울리고 들리게 보였다 안 보이게

인강 듣는 책상 옆 오락기가 있는 평상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한 소파 옆엔 빙글빙글 뺑이 의자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마음껏 게으르고 산만하게
한 공간에 각자 그리고 같이

프로젝트를 기록하며 블로그에 쓴 글